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밤(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계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 부활 감사송 1 <파스카의 신비> -

파스카 성야 미사

제 1 부 성야의 장엄한 시작, 빛의 예식
(불 축복과 파스카 초의 마련, 행렬, 파스카 찬송)

제 2 부 말씀 전례

제1독서 | 창세 1,1-2,2<또는 1,1.26-31>

화답송 | 시편 104(103),1-2.7.5-6.10과 12.13-14.24와 35<◎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2독서 | 창세 22,1-18<또는 22,1-2.9.10-13.15-18>

화답송 | 시편 16(15),5와 8.9-10.11(◎ 1)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제3독서 | 탈출 14,15-15,1

화답송 | 탈출 15,1.2.4.5-6.17-18(◎ 1.2.4)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제4독서 | 이사 54,5-14

화답송 | 시편 30(29),2와 4.5-6.11-12.13(◎ 2.13 참조)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5독서 | 이사 55,1-11

화답송 | 이사 12,2-3.4.5-6(◎ 3)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제6독서 | 바룩 3,9-15.32-4,4

화답송 | 시편 19(18),8.9.10.11(◎ 요한 6,68)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제7독서 | 에제 36,16-17.18-28

화답송 | 시편 42(41),3.5.7.8.11; 43(42),3.4(◎ 42(41),2)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서 간 | 로마 6,3-11

화답송 | 시편 118(117),1-2.16-17.22-23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24,1-12

제 3 부 세례 전례

(성인 호칭 기도, 세례수 축복, 물 축복, 세례 서약 갱신)

제 4 부 성찬 전례

영성체송 | 1코린 5,7-8 참조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었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

입당송 | 시편 139(138),18.5-6 참조

제1독서 | 사도 10,34.7.37.43

화답송 | 시편 118(117),1-2.16-17.22-23(◎ 24)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대!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대!”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제2독서 | 콜로 3,1-4<또는 1코린 5,6.7-8>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게	민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음환호송 | 1코린 5,7.8 참조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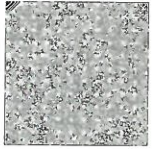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복 음 | 요한 20,1-9

<또는 루카 24,1-12 또는 저녁 미사에서는 루카 24,13-35>

영성체송 | 1코린 5,7-8 참조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었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어제와 다른 오늘

김한수 토마스 신부 | 종로성당 주임

소풍을 나서는 가벼운 발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죽은 이를 마주 해야 하는 무덤을 향한 길이었습니 다. 그 길에서 마주 해야 하는 현실에는 상실과 허탈, 절망과 슬픔이 끝없이 뒤 영켜 있었습니 다. 절망의 길을 나섰던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 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합니 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당혹스러 워 건넌 말이 주님 부활을 암시하는 첫 말이 되었습니 다. “누 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 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 습니 다.”(요한 20,2) 어제까지 일로 힘겹고 슬픔이 가득한 마음 으로 나선 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어집니 다.

빈 무덤.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고 안식일 다음 날 찾아 간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복음서의 증언은 여러 사실과 의 미를 담고 있습니 다. 유다이즘의 주간 첫날이 주님의 날이 되어 교회와 세상 역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 다. 유 다 사회에서 증언의 유효성은 남성에게만 있었음에도 초기 교회는 부활의 첫 증인(선포자)으로 마리아 막달레나를 포기 하지 않았습니 다. 주님 부활에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 를 준다는 측면에서 당혹스럽지만, 교회는 무덤이 비었다 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 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 갔 다. 마태 28,11-15 참조; 정원지기가 그분을 다른 무덤으로 옮겼다. 요한 20,15 참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의 무 덤이 비었다는 증언은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사건입 니 다. 빈 무덤의 상황은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고 이해 가 능한 역사입니 다. 수난에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이어진

빈 무덤의 상황, 아니 그 이전에 말씀 선포자와 스승으로의 삶, 더 나아가 초라한 탄생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예 수님 삶에서 신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더라도 역사적 영역 은 남습니 다. 빈 무덤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역사적 영역 입니 다. 예수님 생애에서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영역은 여기까지입니 다.

빈 무덤부터는 다릅니 다. 여기부터는 믿음의 영역입니 다. 빈 무덤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는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섭니 다. 빈 무덤을 대하는 당혹스러움은 모두가 한결같지만, 그 반 응은 각자 다르게 이어집니 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빈 무덤에 서 희망을 엿보았습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해하기 어렵지 만 그곳에서 믿음과 희망이 시작되었습니 다. 빈 무덤을 마주 대한 순간 절망 가득한 어제까지의 현실이 기쁨과 희망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 다. 그렇게 빈 무덤에서부터 그리스 도교 신앙의 시작이며 핵심인 주님 부활 신앙이 피어납니 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늘부터 기쁨과 희망으로 새로운 길을 나섭니 다.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던 어제의 발걸음이 오늘은 새로운 기쁨의 소식으로 가볍습니 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빈 무덤에서 보았기 때문입니 다. ‘단지 무덤이 비었을 뿐’이라 는 냉소를 넘어 오늘 마주하는 빈 무덤에서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희망이 시작됩니 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성 영메르 센터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루카 24,7)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어 부활의 징표를 보여주시며,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죽음이었음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부활은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앞으로 겪을, 하느님을 믿고 그분 뜻을 충실하게 따를 때 하느님이 바로 나에게 해주시는 일이 기 때문입니 다.



김대환 안드레아 | 가톨릭사진가회



조용민 요셉 | 구글 코리아

“함부로 친절하기(Random Act of Kindness)”

우리나라의 MZ(엠제트)세대에서 MBTI(성격유형검사)가 엄청난 유행을 오랫동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번 해보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에 비하여 제게는 한결같은 결과만 나오는 것을 보면, 저는 참 변하지 않는 캐릭터의 소유자인가 봅니다. 저는 ISTJ가 나오는데, 이는 갑작스럽거나 새로운 시도 보다는 계획된 것을 좋아하고, 대중 속에서는 에너지가 소진되어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피곤해하는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섬세하신 부모님께서 저의 이러한 성향을 진작에 간파하시고는 어린 시절부터 “용민아, 네가 좀 더 외향적이면 인생이 더 다채로워질 텐데 말이다.”라고 여러번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면서 저의 생각을 물어오셨습니다. “너도 ‘함부로 친절하기(?)’를 습관화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외향적으로 되고, 다양한 경험들로 삶이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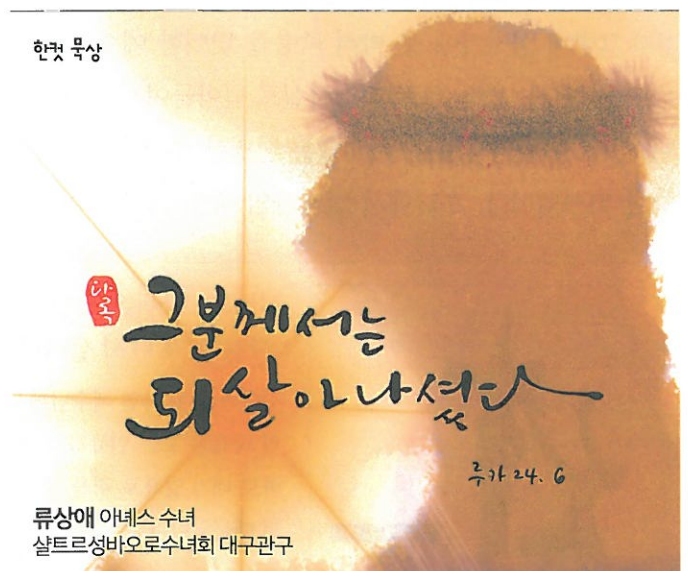
어느 맥도날드 승차 구매(Drive thru) 매장에서 한 여성 고객이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던 참에 본인이 주문한 내용을 결제하면서 뒤따라 주문한 차량의 주문 내역까지 한꺼번에 결제하고 출발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뒤차에 타고 있었다면 어떠셨을까요? 네, 우선 기분이 좋으셨을 겁니다. 아마도 감사한 마음에 연달아 뒤차의 주문 건도 결제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뒤차가 바로 뒤차의 주문 건을 대신 결제했고, 그 차는 바로 다음 차를 위해 서로 결제해 주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 행렬은 결국 248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 준다는지, 불특정 다수를 위해 가벼운 친절을 뜬금없이 베푸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를 “함부로 친절하기(Random Act of

Kindness)”라고 하며, 이것은 미국 문화 정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루카복음 12장 33절에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쏘지도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느님이 강조하시는 베푸는 삶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내성적임에도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되느냐, 외향적임에도 같이 있으면 즐겁지 않은 사람이 되느냐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통행료가 2천 원인 남산1호터널을 지나면서 만 원을 조심스레 꺼내서 뒤에 있는 차량 4대도 같이 계산해 달라고 해봤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을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직접 기부 활동도 더 자연스러워짐을 느낍니다. 즐거움이 마음 한켠에 솟아납니다. 하느님께 또 감사합니다.

한껏 묵상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백종연 바오로 신부 |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지상에 계셨던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맺으신 구체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시어 당신의 보편적 주권으로 모든 피조물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도 보여 줍니다.”(「찬미받으소서」 100항)

우리는 오늘 주님 부활 대축일을 경축하고 있습니다. 사순 시기 동안 주님의 수난과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며 회개의 생활로 이날을 준비해온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른 때보다 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물질세계에 몸소 오시고 이제 부활하시어 모든 존재의 내면에 현존하시며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당신 빛으로 밝혀 주신다는 확신”(221항)을 고백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마지막에 실린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에서 피조물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246항) 우선, 성부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피조물들은 “아버지의 현존과 자애로 충만하나이다.”하고 고백합니다.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자께서는 “오늘도 부활의 영광 안에서 모든 피조물 안에 살아 계시나이다.”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피조물과 함

께하시나이다.”하며 기도를 이어갑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이끄신다는 기도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피조물들과 함께 바치자고 교황님께서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 안에 현존하신다는 기도를 바치면서 그 피조물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세상 만물에 하느님이 현존하시지만, 만물이 하느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만물과 하느님 사이에 무한한 거리가 있다.”(88항)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청할 것을 피조물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할 뿐입니다. 교황님은 지구를 신격화하려는 잘못된 움직임을 경계하며, 지구의 취약함을 기억하고 이를 돌보아야 할 우리 인간의 소명도 잊지 말자고 강조하십니다.(90항)

찬미받으소서 여정은 공동의 집을 돌보며, 특히 인간 사회 안의 불의를 없애고 가난한 이들과 약자를 돌보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여정입니다. “다른 생명체들을 무책임하게 다루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엄청난 불평등에 분개해야 합니다.”(90항)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공동의 집 지구를 돌보는 일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을 결코 분리할 수 없음을 의식하며 우리는 이 여정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요한 11,43)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부활의 은총과 생명이 온 세상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특별히 우리와 한 형제인 북한의 형제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평화를 되찾아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연의 생명이 움터 나오는 봄과 함께 부활 대축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우리의 삶이 바야흐로 새로운 생명의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정점을 지나 진정한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으로 움츠려 들었던 우리도 이제 그만 각자의 ‘동굴’에서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라자로의 소생을 다시 보면, 이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예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코린 15,13)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 모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됐던 기간에는 미사도 직접 참례하지 못하는 어려움

을 겪기도 했고, 이 어려운 시간 동안 평화방송 미사나 인터넷 방송 미사가 그나마 많은 위로를 주는 통로의 역할을 고맙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자의 ‘동굴’에 ‘안전하게’ 또 더러는 ‘안일하게’ 방송 미사에 안주하고 싶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하고 불러내시는 듯합니다. 신앙은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이고, 방송으로는 미사의 성사성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송으로 미사를 시청하는 것은 실제로 미사 참례하는 것은 아니기에 완전한 미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몸이 불편하셔서 부득이 성당에 오실 수 없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고마운 도구로서 ‘말씀을 묵상하는 기회’로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죽었던 이를 칭칭 감싸고 있던 천’을 풀어 주어 우리를 자유롭게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알게 모르게 더 고착되어 있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기심’이라는 천, 이웃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꺼리는 ‘두려움’의 천, 편안함에 길들여진 ‘안일함’의 천들을 벗어버리고, 하느님 안에서 참 생명의 자유로움으로 나오라는 초대입니다.

새봄, 새싹이 돋는 놀라운 생명의 봄에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초대해 주시는 부르심을

들으며, 자연의 위대함 속에 숨어있는 하느님 선물을 보게 됩니다. 봄의 생명력은 예수님의 부활이 주시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절에 저는 세 가지 작은 묵상점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자연의 위대한 생명력과 회복력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신비에 감탄하고 감동할 수 있는 따뜻한 감수성을 다시 회복해 나갑시다. 뺨을 스치는 봄바람에도 까르르 웃을 수 있었던 그 약동하는 생명의 감수성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무덤덤과 무표정, 무관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게 내버려 두지 맙시다.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의 따뜻함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갑시다.

이 생명의 봄, 부활한 생명의 계절을 통과하며, 참 생명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팍팍해졌을지라도,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 가는지 하는 궁극의 목적을 잃은 채 의미 없는 분주함에 우리의 삶 전체가 매몰되지는 맙시다. 이 봄의 생명력이 일깨우는, 예수님 부활의 선물인 생명, 그 근원이자 우리가 결국 돌아갈 궁극 목적지인 하느님을 다시금 만나는 시간이 되어 봅시다.

우리가 받은 생명을 감사하며 기쁘게 하느님께 사랑의 열매를 바쳐드리기로 결심해 봅시다. 한때 유행했던 표현으로 '까르페 디엠'(carpe diem, '오늘을 잡아라', '현재를 즐겨라')이라는 라틴어 표현이 있습니다. 참으로 '현재를 즐기는 모습'은 그저 '젊음을 엔조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은 '하느님께 깊이 감사할 수 있을 때, 현재를 진정으로 즐기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연의 생명력 안에 지금 우리에게도 선물해 주시는 참 생명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루

하루에 감사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힘찬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마침내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새 생명을 다시 주십니다. 이 봄의 생동하는 생명력 안에 담긴 하느님 생명의 선물을 감사하며, 우리 각자의 힘든 삶 안에도 속 깊이 담겨있는 생명의 선물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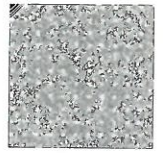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2년 이상의 코로나 사태로 어려우신 분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잘 챙겨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 다양한 세대,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 서로 소통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일상의 삶을 회복하기를 평화의 성모님께 전구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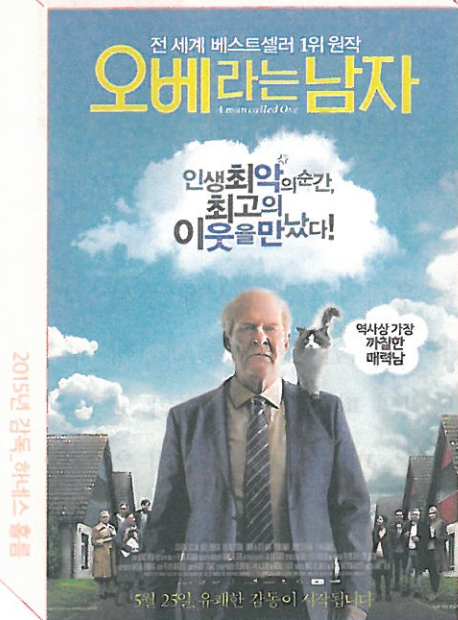
정순택



영화 '오베라는 남자'

아름다운 부활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오베’라는 스웨덴 남자가 있습니다. 59세로 까칠하기가 그

지없어 뭐 하나 맘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만 옳고, 자기 빼고는 다 바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눈에는 이상한 동네, 멍청한 이웃, 망가진 세상만 보입니다. 옛 물건의 유용성만 고집하고, 고쳐서 쓸 생각은 않고 새 것을 사는 젊은이들을 경멸합니다. 컴퓨터도 당연히 멀리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그에게 ‘조금만 마음 편하게’, ‘조금만 느긋하게’는 무책임일 뿐입니다. 혼자일 수밖에 없겠지요. 43년 동안 근무한 철도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함께 떠난 여행길에서 버스 전복 사고로 임신한 아이를 잃은 것은 물론 하반신까지 마비되는 ‘최고의 순간에 닥친 최악의 비극’ 속에서도 밝게 살아간 아내, 유일하게 자신을 감싸주고 이해했던 아내 소녀(이다 영볼 분)도 6개월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흑백으로만 보는 그에게 유일한 색깔이었던 아내의 죽음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멈추게 했고, 완전한 어둠에 갇히게 했습니다. 더 이상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그는 죽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옆집에 새로 이사 온, 그것도 이민자인 이란 출신의 여자 파르바네(바하르 파르스 분)와 그녀의 여섯 살 난 딸부터 방해로 합니다. 절묘하게도 시도를 하는 순간 트레일러로 벽을 긁고, 아이가 음식을 들고 와서는 문을 두드립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기차역에서 달리는 열차에 뛰어 들어 죽으려다 한발 앞서 철로로 넘어져 죽을 뻔한 남자를 구해줍니다. 차고에서 몰래 자동차 배기가스를 이용하려 했지만, 때마침 기차역에서의 그의 용감한 선행을 취재하러 찾아온 여기자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아내에게 “어떻게든 당신에게 갈게.” 라고 하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때마다 실패합니다. 자꾸만 할 일도 생깁니다. 창문을 고치려다 사다리에서 떨어진 파르바네의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고, 파르바네에게 운전도 가르치고, 이웃 소년의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도 넣어주고, 의절한 이웃 친구의 아내가 부탁한 난방기도 고쳐줍니다. 이웃들과 합심해 친구가 아내와 헤어져 혼자서 요양원으로 가는 것도 막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둘 생깁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너그러움,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면서 껌껌했던 그의 세상도 빛깔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내 “모든 어둠을 쫓아버리는 데는 한 줄기 빛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빛으로 오베(루프 라스가드 분)는 새로운 삶을 맞이합니다. **살아가는 것을 멈추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일까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결코 아닙니다. 이방인인 파르바네 가족을 통해 그에게 비춘 한 줄기 빛이야말로 주님의 손길일 것입니다. 그분은 보이시지는 않지만 “있는 나”(탈출 3.14)로 늘 우리 곁에 계시니까요. **휠체어에 의지해 살면서도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왔던 아내가 그에게 진정으로 바란 것도 멈춤보다는 이렇게 살아있는 세상에서 누군가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는 아름다운 ‘부활’이 아닐까요.**

유봉준(토마스) 신부님 선종



서울대교구 소속 유봉준(토마스) 신부님께서 지난 4월 1일(금)에 선종하셨습니다. 유봉준 신부님은 1931년 평양남도 중화군에서 출생하여 1961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총무, 정릉동성당, 가톨릭대학 신학부(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겸 가톨릭출판사 사장, 가톨릭대학 신학대학장, 사당동·신수동·석촌동성당에서 사목하시다가 2001년 원로사목자가 되셨습니다. 4월 4일(월)에 장례미사를 거행했으며,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4월 20일(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cc.catholic.or.kr)-교회 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해외 선교 사제 파견미사

양경모(백시교), 김경진(대만) 신부님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해외 선교 사제로 파견됩니다. 이에 정순택 대주교님의 집전으로 '해외 선교 사제 파견미사'를 봉헌하오니 함께 하셔서 기도와 격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때, 곳: 5월 4일(수) 오후 2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집전: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 문의: 02)727-2424

주교회의 2022년 춘계 정기 총회 결과

■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시성 기도문' 승인 ■ '하느님 재비를 구하는 기도의 우리말 번역문 승인' ■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자의 교서 '일부 권한의 부여'에 따라 개정된 교회법 조항의 우리말 번역문을 승인 ■ '천주교 신자를 위한 일치 운동의 길잡이' 『그리스도인 일치의 여정』 승인 ■ 한국카리타스의 사단 법인 설립 계획 승인 ■ 세계주교신도 제16차 정기 총회 준비를 위한 국가별 종합 의견서 작성에 관해 논의, 한국남녀수도회장상회 대표와 평신도 대표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 모임을 확대 ■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에서 제작한 사형제도 폐지 교육·홍보 영상을 승인 ■ 2022년 워싱턴 국제학술대회에 주교회의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공동 명의의 지지 서한을 보내고, 학술대회에 참석하기로 함 ■ 주교회의 상임위원 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이사: 정순택 대주교, 주교회의 성직주교위원회 위원장: 정순택 대주교, 주교회의 교리주교위원회 위원: 김종강 주교 임명자,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 김종강 주교 임명자 선출 ■ 제53차 세계성체대회(2024년, 에라르드 키토)에 참가할 한국 대표 주교로 정순택 대주교 선출 ■ 2021년에 한국 천주교회가 실시한 백신 나눔 운동의 총모금액은 10,434,587,260원이다 ■ '착한 사마리아인 기금'의 2022년 사용처를 검토하고, 우크라이나 난민, 미얀마 난민, 그리고 교황청립 로마한인신학원에 거주하는 가난한 나라들의 사제들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함(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 참조)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0년 4월 23일 백남희 베드로 신부(53세)
- 1944년 4월 20일 안학만 루카 신부(56세)
- 1986년 4월 23일 임중국 바오로 신부(80세)
- 1996년 4월 19일 신인균 요셉 신부(91세)
- 2003년 4월 18일 한희동 그레고리오 신부(68세)
- 2008년 4월 21일 류영도 디오니시오 신부(83세)
- 2008년 4월 24일 김택구 루도비코 신부(72세)

교구정월말

서울대교구 소방관 가족 온라인 기도모임 안내

접수기간: 4월18일(월)~22일(금)
 지도: 강혁준 신부 /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서울대교구 사목상담 '화상수업'

주제: 나는 내인생을 너는 내인생을 살아가
 때: 5월12일~8월11일 매주(목) 오후 8시~9시
 교육 지도: 문종원 신부 /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향심기도 소개강의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누구나
 때: 5월3일부터 매주(화) 14시~15시30분(4주간)
 곳: 영성센터 A313호(구 계성여고)
 회비: 1만원 / 문의: 010-4565-8898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때, 곳: 5월12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국장신부, 김윤상 차장신부(해외선교 봉사국) /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문의: 02)727-2407, 2409

2022 빈민사목위원회와 공단기가 함께하는

'함께 꾸는 꿈(CUM) 희망 프로젝트' 교육생 모집
 대상: 서울 거주 만 19세~35세 청년 중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의 가구원, 한부모·조손가족 보호대상, 자립준비청년 등 / 교육과정: '공단기' 공무원 전직렬 온라인 강의 지원
 신청기간: 4월18일~5월31일 / 문의: 02)777-7261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홍성남 신부(소장)의 영성심리특강 및 미사
 때, 곳: 4월23일(토) 15시부터, 가톨릭회관 7층
 마스크 미착용시 입실불가 / 문의: 02)776-8405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벽 분당 갖기 미사)

때, 곳: 1314차 미사 4월19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분당: 평양교구 안주 분당, 정주 분당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 가능: 매주(화) 19시('유튜브' 앱 실행→'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 문의: 02)727-2420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달의 하느님의 중 '서태순 아우구스티노'
 때: 매달 셋째주(화) 4월19일 오전 10시(173회)
 곳: 절두산 순교성지 / 문의: 02)2269-0413
 절두산 순교성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슬픔 속 희망찾기' 월례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매월 세번째(토) 4월23일 10시-묵주기도, 10시 30분-유가족미사
 곳: 명동대성당 옆 영성센터 경당(상설교해소 건물)
 문의: 02)318-3079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이정숙 개인전: 1전시실
 이경준 개인전: 2전시실
 전시일정: 4월20일(수)~25일(월)
 철조망 평화의 십자가 되다: 3전시실
 전시일정: 4월13일(수)~25일(월)

'별빛 같은 사람'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사진전

때, 곳: 4월21일(목)~5월1일(일), 명동대성당 지하 1898광장 /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영혼의 평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작은 별빛이 되고 싶었던 정진석 추기경님. 하느님 품에 안기신 지 벌써 1년이 된 정 추기경님의 반짝이던 삶을 기억하는 사진전이 열립니다 / 문의: 02)727-2031

2022년 가톨릭스카우트 체험캠핑

서울대교구 청소년가톨릭스카우트에서 청소년을 위한 스카우트 체험캠핑을 개설합니다
 대상: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1학년
 때: 6월4일(토)~5일(일) 1박2일 캠핑
 곳: 경기도 양주시 삼송리야영장
 신청방법: <https://seoulcscouts.modoo.at> 참조
 신청기간: 4월12일(화)~5월11일(수)까지
 문의(신청): 02)762-9857 / (화~토) 8시~17시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2년 상반기 영성심리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집단상담, 영성심리독서모임, 피정 등(온라인 수업)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 02)727-2126(tpcc@seoul.catholic.kr)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8시) /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인준단체 알림

모임

토아올림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부활의 성모 묵상 피정

때, 곳: 4월25일(월) 10시~13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강의, 묵상, 미사 / 문의: 010-9620-4820 마리아학교

하느님의 자비 주일 행사

내용: 고해성사, 미사, 강의 / 문의: 02)756-3473, 010-2579-3473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때, 곳: 4월24일(일) 13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한국 CLC)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자연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만나기
때: 5월27일(금)~29일(일) 2박3일
곳: 스승예수 피정의 집(여주군 강천면)
5월19일까지 접수 / 문의: 02)333-9898 (월~금)

제주 성 이시들 자연 순례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 사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분장
때: 4월24일~26일, 4월30일~5월2일, 5월6일~8일,
5월10일~12일, 5월16일~18일, 5월22일~24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가정선교회 5월 행사 부부나들이 피정

때, 곳: 5월14일(토) 14시~15일(일) 17시, 성라자로마
을 아론의집 본관 / 한철호 신부, 홍성남 신부, 이
성호 박사, 이요셉 소장, 이현주 회장, 김미희 강사
회비: 1부부 20만원 / 계좌: 신한 131-020-141419
(계)천주교서울대교구(가정선교회)
준비물: 개인컵, 운동화, 수건, 세면도구
문의: 010-6281-8626, 02)777-1773 대표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
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4월29일~5월1일, 5월18일~20일
성지순례 (추사도 포함)	5월5일~8일, 5월12일~15일, 5월28일 ~31일, 6월4일~7일

교육

반포4동성당 김대건 안드레아 성서 아카데미(코헬렛)

주제: 코헬렛(전도서) / 대상: 신자 및 성경에 관
심 있는 분(선착순-방역 지침상 허용인원)
강사: 박요한 영식 신부(반포4동성당 주임)
때: 5월12일~7월14일 매주(목) 10시50분~12시
곳: 반포4동성당 대성전 / 회비: 4만원(교재비 포함)
4월30일까지 접수 / 강의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도 수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3482-2255 반포4동성당 사무실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146기·청년반 13기 개강
때: 4월26일(화) 14시·4월27일(수) 19시·4월26일
(화) 19시~청년반 / 회비: 7만원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회비: 1만원 /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2022년 후기)
모집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
학 석사과정 / 입학전형: 6월7일(화) 14시
원서접수: 5월9일(월)~20일(금) 17시
문의: 02)2258-7076 대학원교학팀, 02)2258-7107 조교

‘오르프’와 함께하는 심, 움직임(리듬음악을 통한
몸의 자유) / 문의: 02)924-3048
대상: 39세 이하 청년직장인(10명 이내) / 카톡ID: k_off
때, 곳: 4월19일~5월10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성골롬반의방선교회(주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음악아카데미
교육과정: 수시 모집
회비: 16만원(8주 기준) / 문의(접수): 해당 과목 강사

국악가-대금·소금·단소 생활음악악기-판플룻· 통기타·우쿨렐레·오카 리나·아이리시틴휘슬	(목) 10시30분~12 시30분, 15시~17 시, 18시~20시	문의: 010-7930-2074
재즈피아노	(목) 19시~21시, (금) 10시~12시	문의 010-7244-1312

모집

재속 맨발 가르멜회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공
동체 회원 모집 / 문의: 010-3217-8235
대상: 만55세 이하 건전성사 받은 분 / 첫모임: 6월13일

명동대성당 무지카사크라소년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1986년 창단된 한국 최초의 소년합창단이 신입단원
을 모집합니다 / 대상: 9세~12세 가톨릭 신자 남아
문의: 010-5514-3002 자모회장

미사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례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때, 곳: 4월29일(금) 11시30분, 전철 2·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때, 곳: 4월18일(월) 14시~15시30분, 가톨릭회관
205-2 /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성서가족 열린미사(역삼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일 넷째주(일) 4월24일 15시
곳: 역삼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인사

미혼모의 따뜻한 보금자리 인천자모원
미혼모의 출산, 건강회복, 자립지원, 무상제공
입소문의: 032)772-0071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사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iscen.or.kr

전문 심리상담	부부 및 가족상담, 개인상담-정서불안 ·우울·분노·의사소통의 어려움
사목상담	성격, 관계, 정서(불안·우울·단절감) 등 심리적 고통에 관한 상담 / 대상: 개인, 가족, 부부, 청소년 누구나(무료 10회기)

유관단체 알림

다스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 부부, 진로, 영성상담,
진로검사, 화상(Zoom) 상담 가능 / 소장: 이찬 신부
문의: 010-9295-5912(www.dstcoun.net)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요양보호사 / 주 40시간, 3교대, 기숙사 운영

성가복지병원 직원 모집 / 문의: 02)940-1503
분야: 치과과사 1명, 치과위생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 이메일(hfh1990@daum.net)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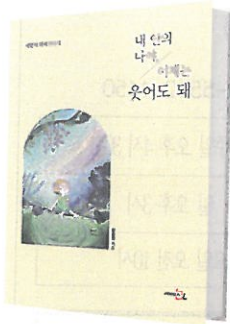
서울성심간병인회 남녀 간병사 수시 모집
곳: 서울삼성, 서울성모, 여의도성모, 은평성모병원
근무내용: 환자에게 간병 제공(24시간 병원 상주) / 1522-9415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서울) 사제식당 직원 모집
분야: 사제식당 조리원 0명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채용시까지 접수
문의: 02)740-9707(http://songsin.catholic.ac.kr)

성서와함께 직원 모집
분야: 편집부-단행본 편집(경력자 및 외국어 가능
자 우대), 업무부-제품 관리 및 배송(한글, 엑셀 가
능, 운전면허 1종 소지자) / 이메일(pen@withbible.com)
접수(제목: 2022 성서와함께 입사 지원서_지원자 이름)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서류 전형 후 면접대상자에게만 개별 통보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거룩한 열정의 딸 수도회	4월24일(일) 15시	본원(사당동)	010-5920-6367 기 헬레나 수녀
살레시오회	매월 네번째(토) 14시	수도원(대림동)	010-2042-8353 심재현 신부
성모자헌 애덕의 도미니교 수녀회	4월24일(일) 14시	수녀원(부천)	010-5166-1275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수시	수녀원(청주)	043)295-5940(cumjesupassio@gmail.com)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내 안의 나야,
이제는 웃어도 돼**

문중원 지음
레벤북스 | 328쪽 | 3만8천원
문의: 010-2572-1365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동과 일 등 외적인 삶에만 매달려 삶의 보다 큰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삶의 궁극적인 질문들과 씨름하면서 바깥으로만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안으로 돌리게 한다.



신간
이샤야 예언서

박형순 지음
성서와 함께 | 420쪽 | 2만원
문의: 02)822-0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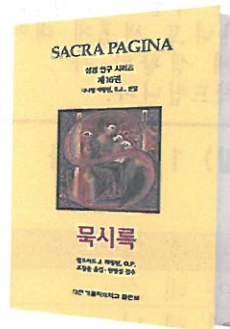
예언서를 전공한 저자는 입문에서 예언서와 이사야서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사항을 충실하게 소개한다. 이사야서를 잘 짜인 한 권의 책으로 살펴 크게 일곱 단락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각 편마다 구조, 그에 따른 본문 해설, 신학적 의미, 말씀의 육화를 위한 단상으로 구성했다.



신간
교부학 사전

지그마르 뉘프-빌헬름 게어링스 엮음
한국성토마스연구소 | 1284쪽 | 11만원
문의: 02)762-1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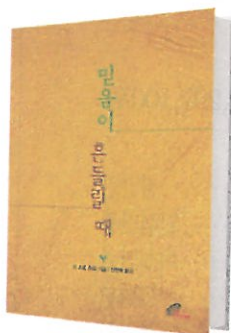
현대 교부학계의 대가 뉘프와 게어링스가 공동 편집한 이 책은 로마 아우구스티누스 대학에서 펴낸 『교부학과 고대 그리스도교 새 사전』과 더불어 오늘날 교부학 사전의 양대 기둥이다. 교부 인명과 지명을 보편적 원칙에 따라 더 섬세하게 다듬었다.



신간
**성경 연구 시리즈
제16권 목시록**

윌프리트 J. 해링턴, O.P. 지음
대전가톨릭대학교 출판부 | 432쪽 | 2만5천원
문의: 02)762-1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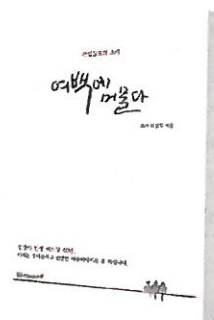
예언적인 묵시문학 서간, 묵시록은 대단히 그리스도교적인 문헌이다. 해링턴 신부는 묵시록에 숨겨진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책의 각 부분에 대한 새로운 번역을 제공하며, 여기에 설명을 요구하는 원문과 해당 본문의 문제들을 다루는 주해를 함께 덧붙인다.



신간
믿음이 흔들릴 때

R 스콧 허드 지음
바오로딸 | 264쪽 | 1만3천원
문의: 02)944-0807

하느님의 선물인 믿음의 초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관한 책이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신앙인으로서는 할 일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실천할 수 있는 흥미롭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며 실행하도록 초대한다.



신간
여백에 머물다

하삼두 지음·그림
들숨날숨(분도출판사) | 224쪽 | 1만6천원
문의: 02)2266-3605

하삼두 작가는 일상을 기록한 짧은 시와 에세이 형식의 단문들과 더불어, 근작 48점에 대한 제작 노트, 미술 담론, 표현 과정을 한 묶음으로 목었다. 그리고 이를 갤러리에 오신 손님을 작업장으로 초대하여 미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으로 풀어냈다.

제2225(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병국(비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가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빕니다.”





오늘 18명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축복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세례식 : 4월 17일(주일) 11시 미사

◎ 세례자 명단

성명	세례명
전일예	아네스
김은주	헤레나
유지은	아네스
김혜숙	유스티나
김창선	미카엘
왕소희	라사르
이다영	미카엘라
이연희	루시아
김현서	라파엘
김민주	로사리아
배해림	헤레나
이효진	안젤라
최지원	글라라
홍이경	아네스
신규리	베로니카
이정순	안젤라
김동주	베드로
남용우	프란치스코

◎ 성소후원회 미사 : 4월 19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회원분들 회비는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병자영성체 : 4월 22일(금) 10시 미사 후

◎ 레지오 전단원 교육

일시 : 4월 24일(주일) 오후 1시 / 대성전

◎ 청년 한푸름성가대 단원 모집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를 찬양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4시

문의 : 미카엘라 단장 (010-3160-2988)

◎ 청년레지오(셋별 Pr.) 단원 모집

대상 :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청년
회합(기도) :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문의 : 안나 단장 (010-9524-8988)

※ 코로나19로 당분간 회합은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 오늘은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4. 10)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079	727 (35.0%)	670 (32.2%)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누 계 28,297,100원

◎ 감사헌금 (4월 4일~10일)

익명 일백만원	정수진 칠만원
김화영 오만원	최일곤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윤혜련 이십만원
임호순 일십만원	오인환 오만원
박명숙 오만원	이주열 삼만원
박명순 이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주님 수난 성지 주일)

교무금 14,355,000원
주일헌금 5,179,500원
사순절 이웃돕기 2차헌금 2,529,000원